



【 2010년 7월 16일(금) 언론보도사항 】

등록신문

제6대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 김용욱 부의장 당선

절대 다수당 없는 4당체제에서 한나라당 전반기 의회 리더 맡아 최선 운영위원장 · 이영심 행정위원장 · 박성열 건설위원장 등 선출

한나라당의 유군성 강북구의회이 제6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2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한 결과 유군성 의원과 김용욱 의원을 각기 선출했다.

한나라당 6석, 민주당 6석, 민노당 1석, 진보신당 1석으로 절대 다수당이 없는 4당체제로 처음 문을 연 제6대 강북구의회는 팽팽한 접전으로 의장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차 투표에서 심경계 결판이 났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의장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유군성 의원이 9표를 얻어 5표를 얻은 민주당의 박문수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당선됐다. 전체 14명의 출석으로 의장당선의 요건인 과반수는 8석으로 한나라당은 6명이 한 마음이 됐고, 민노 진보신당의 두 의원 중에서 1표, 민주당에서 2표가 이탈, 유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1차 투표 결과 김용욱 의원이 9표를 얻어 당선됐다. 나머지 5표는 박문수 의원 1표, 무효표 4표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의장선거에서 민주당이 결집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같은 당 소속 의원 4명이 투표에 기표하지 않거나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무효표를 낸 듯했다.

이날 의장선거에 들어가기 전 사전 민주당 의원들끼리 가진 모임을 통해 이 같은 구도가 될 것을 감지한 박문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부의장 자리를 얻을 요량으로 의장을 한나라당으로 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민중당을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 밖에 구본승 의원이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제를 통해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의회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의사전행발언을 했지만 박상 의장 부의장선거에 들어가자 평은 한 분위기에 1차 투표만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유군성 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된 뒤 인사말을 통해 "제6대 의회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건설적인 의회로 만들자"며 "고통받는 서민들에



유 군 성 의장



김 용 욱 부의장



최 선 위원장



이 영 심 위원장



박 성 열 위원장

게 시급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 의장은 제3 4대 강북구의회를 지내고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4대 구의회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용욱 의원은 제5대 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2선 의원이다.

◆상임위원장 선거-13일 오전 계속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들어가 행정위원장에 민주당의 이영심 의원, 건설위원장에 한나라당의 박성열 의원, 운영위원장에 진보신당의 최선 의원이 선출됐다. 이영심 행정위원장은 2선 의원으로 5대 구의회 전반기에 행정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다. 박성열 건설위원장은 4대 구의원을 지낸 2선 의원이며, 최선 운영위원장 역시 5대 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한번 지냈던 2선 의원이다.

이로써 제6대 강북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5명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진보신당 1명으로 각 당별로 골고루 배분됐다는 평가다.

상임위원회별 원구성은 △행정위원회: 이영심(위원장) 이종순(부위원장) 김도연 이순영 김용욱 최선 △건설위원회: 박성열(위원장) 구본승(부위원장) 김동식 이백균 김남연 이성희 박문수 △운영위원회: 최선(위원장) 김도연(부위원장) 구본승 박문수 이성희 이종순 등으로 이뤄졌다.

강북구의회는 이틀간 원구성을 끝내고 오는 22일(화) 오전 10시 제143회 임시회를 열어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성수 기자 sungshu@hmail.net>

제6대 강북구의회 개회사 소통과 화합하는 건설적인 의회로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경수 강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강북구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등원과 박경수 구청장님의 영예로운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저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991년 초대의회가 시작된 이래 6대 의회가 시작되는 지금까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6대 의회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건설적인 의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제 임기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바른 의정활동에 힘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강북구민이 여러분에게 보내 준 성원과 지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거는 구민들의 기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00만 명이 넘는 실업자 문제와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연재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논쟁 뒤에는 가난한 서민들의 한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시급한 일들

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열정을 바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주민과 약속한 일들은 우리 의원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견제와 효율적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4년이 지난 후 강북구가 이전보다 확실히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 동안 강북구와 의회에 보내주신 지극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년 동안 강북발전을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구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끝으로 비싼 선 중에도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여준 구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의회 소식

“소통과 화합·건설적 의회 만들자”

강북, 제6대 의장 유군성·부의장 김용욱 선출

강북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에 제6대 강북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제142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유군성 의원을 부의장에 김용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 당선자 유군성 의원은 제3, 4대 강북구의회를 지내고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된 3선의원이며,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용욱 의원은 제5대 의원에 이은 2선 의원으로 제5대 의원 당시에는 후반

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바 있다.

유군성 의장(사진)은 “제6대 의회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건설적인 의회로 만들자”며 당선 소감을 밝히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시급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3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선입과 각 위원회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박남수 기자 pns@seouilbo.net

아시아일보

강북구의회 의장에 유군성 의원

부의장엔 김용욱 의원 선출

강북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에 제6대 강북구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제142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에 유군성 의원을, 부의장에 김용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의장 당선자 유군성 의원은 제3, 4대 강북구의회를 지내고 제6대 구의원에 당선된 3선의원이며, 부의장으

로 선출된 김용욱 의원은 제5대 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으로 제5대 의원 당시에는 하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유군성 의장은 “제6대 강북구의회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어, 건설적인 의회로 만들자”며 당선 소감을 밝히고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시급한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 모두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의회를 찾은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회 개회를 축하한다고 전하며, “자신을 비롯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여 지혜를 모아 강북구를 살기 좋은 고장, 이사 오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구의회는 지난13일에 상임위별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제6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상임위별 위원장으로는 행정위원장에 이영심의원이 선출되었고, 건설위원장은 박성열의원이,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최선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강북구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43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관기자 gunjol@hanmail.net

